

『襄陽空港 開港記念 鳥取県 日本國民文化祭2002 弘報團』訪問



韓・日 親善 藝術公演



日時：2002年5月16日 18:00
場所：束草市 束草文化會館
主催：江原道藝總
主管：束草市藝總
後援：(株) 成 昌

작 품 소 개



dottoori 상상우산춤

옛날 옛날에 큰 가뭄이 들어 작물을 구하기 위하여 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춤춘 것으로 조그만 우산을 들고 춤을 추던 데서 생겨난 춤이다. 지금은 dottoori의 여름 한밤을 "상상"을 리는 아름다운 방울 소리로 장식하여 화려한 두루마리 그림처럼 펼쳐지는 dottoori현의 대표적인 춤이 되었다.



유카무리우타

산인(山陰) 최고의 이와이(岩井) 온천은 1,3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옛날부터 유카무리우타(노래)가 전승되었다. 이 노래는 이와이온천의 자연풍토속에서 생겨난 이와이 팔경을 둘러보고 온천욕을 즐기는 일행들끼리 물에 몸을 담그고, 작은 바가지로 물의 표면을 두드리면서 박자를 잡고 머리에 온천물을 끼얹으면서 노래하는 보기 드문 풍습이다. 이와이온천을 가리켜 유카무리온천이라고 부른다.

정통 가이가라부시(조개잡이노래)

이 노래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남성적인 호쾌함과 애절한 멜로디이며, 동해(일본해)의 바다냄새와 그들의 쩍쩍한 생활이 노래 전체에 넘쳐나며 남성의 건장함과 여성의 풍부한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춤이다. 이번에는 여성 춤만 춘다.



장고춤

장고는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기악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악기로서 궁편과 채편의 음률이 마치 음과 양과 같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며 음의 조화를 이룬다. 민요를 중심으로 굿거리 장단에 맞춰 흥겹고 태평스러운 여인의 흥취가 돋보이는 춤이다.



영동 풍물놀이

국악협회 강릉시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영동풍물팀의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이 행사의 생동감을 더한다.

살풀이

살풀이 춤은 남도 무무(巫舞)의 계통으로 살(煞)을 쫓는 뜻이며, 흰 명주 수건을 들고 독특한 살풀이 장단에 맞춰 정·중·동의 묘미가 극치를 이루는 춤이다.

강원. 경기 민요

- 정선 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 타령, 궁초대기

□ 돗토리현 민용 지도자 연맹(鳥取県民踊指導者連盟)

우메다 요우코(梅田 洋子), 니시가키 야스코(西垣 康子), 나카시마 기쿠에(中島 喜久江)
카와츠 사카에(河津 榮), 오카마츠 미도리(岡松 緑), 토바 미사코(計羽 美佐子)

□ 유카무리우타 보존회(ゆかむり唄保存會)

노자와 미요코(野澤 美代子), 다나카 에츠코(田中 悦子), 오구라 타미코(小椋 民子)
스즈키 사치코(鈴木 幸子), 우에다 마사코(上田 雅子), 미타 스미코(美田 純子)

□ 사토 마츠히로미 (佐藤 松弘美)

야스다 히로코 (安田 弘子)

□ 한국 국악협회 강원도지회(韓國 國樂協會 江原道支會)

박창순, 김길자, 기연옥 (강원, 경기민요)

□ 한국 국악협회 강릉시지부(韓國 國樂協會 江陵市支部)”영동풍물단”

단장 박주홍, 단원 강경만, 유재준, 어성우, 기종석 외 2명

□ 양숙희 무용단(梁淑喜 舞踊團)

단장 양숙희, 단원 강은미, 김민희, 김진숙, 박소정, 정아름, 유승주, 윤민지

주 최 : 강원도예총

주 관 : 속초예총

후 원 : 주식회사『성창』